

10. 주를 위한 곳에서. . .

요한복음 12장 1-8절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의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준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를 위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 . .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기적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의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는 그 때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두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곳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되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든가,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개연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사건을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다른 사건 중에 하나로 보고 싶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식사하실 새’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기념하는 잔치 자리를 굳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가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인에 대한 이름도, 나사라도 마르다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아주 비슷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제아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한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예수님께 무언가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는 것 말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얼마나 결연한 자리였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분명하게 ‘coming out’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결연’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53-절.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로부터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위의 말씀으로 미루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니 비밀스러운 모임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자리 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주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시작점 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이단아가 되거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자리니 말입니다.

주를 위한 자리는 단순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주를 위한 자리’가 그리 낭만적이지 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를 위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헌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를 위한’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주님을 초청한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들의 모습은 모두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은 주님을 위해 드러지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가 무엇인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의 가진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한’ 자리 그 어떤 것도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헌신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계산적이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람에게 ‘거룩한 낭비’는 불가능합니다.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사람의 다른 헌신을 보게 됩니다.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헌신이 있기에 지금 잔치 자리가 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또 한 번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한 나사로의 헌신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헌신’이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경제적 가치’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집안을 진동한 향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퍼져 나간 것이죠.

돌아가신 옥한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사랑의 헌신’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에 먼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300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 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숨에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 일까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값을 묻는 순간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혼수품, 혹은 결혼 예물을 준비하려 함께 나갔다가 일어나는 일들인데, 물건을 보러 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경우에 좀 더 싼 곳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싼 곳에 갔으면 상처 받을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숨을 움켜 다니며 ‘좀 더 싼 곳에 가보자’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니 무조건 질러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하는 일을 간직하고 기념하고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헌신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한 없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에, 그에 합당한 사랑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인도에서 선교하던 어떤 미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잰지스 강가를 걷는데, 어떤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제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만류해 보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니, 그 여인이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 중 하나는 아주 잘생긴 남자 아이였고 다른 아이는 몸도 불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습니다.

한 참을 지나 선교사님은 궁금한 마음에 강독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손에는 한 아이의 손만 붙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직감적으로 한 아이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잘 생긴 아이가 아닌,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 순간 선교사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예다 눈이 멀어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치셨나요?"

그러자 여인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그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드리려면 두 아이 중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은 최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한 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 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을 때가 아닌가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 우리나라에서 '4B 운동'이라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 연애, 비 성관계, 비 결혼, 비 출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더 이상 한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아이를 낳고 얹매이거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가 여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정당한 자기 주장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자든 남자든 자기를 주장하며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들은 모두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기는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 논리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 인류가 단순히 종족 보존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은 일방적인 희생이기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계산적인 눈으로 보는 유다의 생각과, 그녀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일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3절,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모습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니 말입니다. ‘사랑의 헌신’을 ‘계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는 주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만,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를 위한 자리에서 가롯유다는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유다의 생각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아 한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지만, 공동생활을 위해 돈궤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훔쳐서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니, 마리아가 향유를 공동체에 기부했다라면 자신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주를 위한 자리’에서 ‘자신이 취할 이득’을 생각하니 마리아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물고 올 파장 같은 것, 그 행동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들을 평판 같은 것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을 고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것 때문에 정작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 까지 버렸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 본질인지를 구별하는 것 말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유다의 생각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저렇게 호사를 누리며 낭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지점은 사실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라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과도한 대우를 받는 것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벌써 십 수 년이 흘러간 일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는 교인들 중에 직원으로 청소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던 권사님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라 ‘교인과 목사’로서 만남을 가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분이 청소를 하다말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폐암 말기였구요. 안타까운 일은 그 권사님에게 곧 결혼할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을 하고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던 때,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 주례를 서게 된 저에게 봉투를 가져온 일이죠. 그런데 그 분의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런 거 없어도 제가 주례를 잘 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 아시죠? 그리고 이 돈이 목사님에게 제가 마지막 대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 .”

저에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저에게 요즘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는 것인데,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저에게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뉴욕에서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계산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윌리엄과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는 1891년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온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함께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돌아갔던 로제타 홀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 4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 양화진에 남편과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딸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로제타 홀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 셔우드 홀을 의사로 만들어 함께 한국에서 사역을 했죠.

셔우드 홀은 조선 땅에 처음 결핵병원을 세웠던 사람이고, 조선 사람들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썰을 만든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 땅에서 추방될 때까지 부모님의 사역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의 논리와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8절.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생각하며 옥합을 껴는지 아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의미 있게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일들이 ‘나의 고백’보다는 더 깊고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곳에서’ 하는 헌신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아이가 가져왔을 때, 그 헌신이 밑알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현실적 가치와 헌신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깊이 곱씹게 됩니다.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혹시 ‘헌신의 핑계’가 없는가?

그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얻을 이득 때문에 불평을 가지고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앞에 있는 ‘헌신의 기회’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